

1.

제시문 (가), (나), (다)는 크게 타인에 대한 공감 여부로 나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한 반면, (나)와 (다)는 타자에게 공감했다. (가)의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하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반면, (나)와 (다)는 비둘기와 뤼카온에 대한 공감을 보여준다. (나)는 포스터 속의 비둘기를 생명력이 결여된 안타까운 존재로 여긴다. (다) 또한 뤼카온의 입장을 이해하며 아킬레우스 자신도 언젠가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나)와 (다)의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나)는 비둘기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반면, (다)는 뤼카온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공감한다. (나)에서는 '나는 알고 있는데'라고 말하며 비둘기의 생명력이 존재했던 시절을 회상한다. 포스터 속의 비둘기는 '마셔 불 공기가 없다'고 말하며 비둘기의 처지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비둘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다)는 자신도 죽을 운명이라고 말하며 뤼카온에게 일종의 위로를 건넨다. 즉, 자신과 뤼카온을 동일시하며 뤼카온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로 보아, (다)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특징들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뤼카온에 대한 완벽한 공감이다. (가)는 유대인에 대한 공감조차 못하고 있다. (나)는 비둘기에 대한 공감은 이뤄지지만 그건 단순히 제3자의 입장에서의 공감이다. 자신이 비둘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 혹은 자신이 비둘기라는 생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과 달리, (다)는 나 또한 훌륭하지만 '내 위에도 죽음과 강력한 운명이 걸려 있다고' 말한다. 이로 보면,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있다. 단순히 제3자의 입장이 아닌, 자신을 뤼카온에 대체한 표현을 통해 공감함으로써 세 제시문 중 가장 완벽한 공감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공감은 타인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상상, 주체, 폭력 개념을 모두 사용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공감은 상상을 통해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다. 제시문 (라)의 워딩턴은 용서의 개념을 주장하는 학자였으나, 강도에게 어머니가 살해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사건은 워딩턴이 그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자신의 폭력성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자신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워딩턴은 그들을 용서한다. 이는 타인의 입장이 되는 상상을 통해 그들에게 공감하게 된 예를 보여준다. 즉, 주체가 되는 상상을 통해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감은 주장 그대로 타인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제시문 (다)를 보면 아킬레우스가 모두는 죽을 운명이라고 뤼카온에게 위로를 건네며, 운명론적 사고를 통해 뤼카온에 공감한다. 이에 뤼카온은 그의 말에 동의하며 죽게 된다. 이렇게 타인의 주체가 되어 공감하려는 노력은 타인의 공감 또한 이끌어내며, 완벽한 공감이 이루어진다. 이 또한 공감은 타인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타인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공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의 아이히만은 유대인에게 폭력을 가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이는 아이히만이 유대인에 공감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검사 또한 아이히만의 주체가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그를 공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히만을 공감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 아이히만은 '개인적으로 선량한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고 평가될 수 없다. 또한 그가 그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어떠한 강력한 힘이 그를 압박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게다가 그는 어떠한 감정도 없이, 이성적으로만 행동했기에 그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이로 보면, 타인의 주체가 되어 보려는 노력을 통해 수백만 명을 학살한 아이히만조차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감은 타인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